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90원 하락한 1190.4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전일대비 1.90원 하락한 1190.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하락한 1191.00원에 개장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기대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반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 흐름에 반등을 시도하고 수급상으로도 결제가 우위를 보였으나 환율의 변동 폭은 제한되며 1,19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하다 전일대비 1.90원 하락한 1190.4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3.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8.2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91.00	1192.10	1188.50	1190.40	1190.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71.59	1071.59	1065.98	1066.9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77.69	1378.00	1373.39	1375.07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1	1.03	2.01	4.34
	결제환율(수입)	0.69	2.35	4.05	7.7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 위험선호 회복...1,190원대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90.40원) 대비 0.80원 상승한 1,192.0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회복하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 증액하는데 동의하면서 디폴트 우려 해소에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에 국내증시에서도 전일 코스닥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일 환율에 하락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업체 이월 네고 물량 유입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는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실수요 달러 매수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8일 예정된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7.00 ~ 1194.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70.5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80원 ↑
	■ 美 다우지수 : 34754.94, +337.95p(+0.9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8.5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90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